

第 1 回 國際「圖書館運營 및 情報科學」에 관한 세미나 및 東南亞 各國의 圖書館을 視察하고

張 一 世
(國立中央圖書館 司書課長)

一. 세미나의 目的과 參加範圍

지난 2月 9일부터 4月 30일까지 滿 12週에 걸쳐 濠洲政府 主催로 第1回 國際「圖書館運營 및 情報科學」에 관한 세미나가 濠洲의 首都인 칸베라, 西部濠洲 首都인 퍼드市, 빅토리아州 首都 멜번 그리고 뉴 사우드 웰즈 州 首都인 시드니市를 巡訪하면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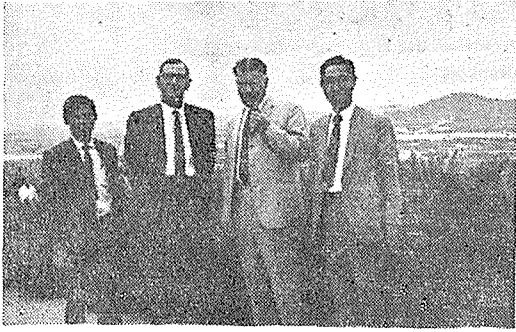
여기에는 主催國인 濠洲를 비롯하여 15個國에서 25 名의 圖書館 專門家들이 참석하였는데 이 세미나의 目的은 近來에 급격히 發展하고 있는 濠洲의 圖書館界를 이웃나라의 專門家들이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으로써 參加國 圖書館 專門家들 에게 각기 자기 국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提供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濠洲는 지난 15年동안에 도서관계에 획기적인 發展이 있었는데 그러한 分野는 ① 大學도서관 ② 공공 도서관 ③ 학교도서관 ④ 도서관에 있어서의 機械化 (컴퓨터 포함) ⑤ 농어촌에 대한 도서관 및 정보 봉사 의 擴大 ⑥ 도서관 전문직 敎育 ⑦ 圖書館間의 協力, 그리고 ⑧ 州 및 國家의인 水準에서의 圖書館계획 등 8개 分野에 重點을 두고 세미나가 마련되었다.

參加國과 人名 및 職位는 다음과 같다.

國 名	人 名	職 位
호 주	Owen E. Slight	시드니大學校 中央圖書館副館長
//	miss Gloria Huish	퀸슬랜드州立圖書館參考部長
비 울 빈	Mrs. Mary S. Baylon	비울빈國立圖書館參考室長
싱 가 폴	Miss Khor Guek Siam	싱가폴國立圖書館參考室長
가 나	David E. M. Oddoye	가나 중앙도서관장
//	Gorge M. Pitcher	가나科學技術大學圖書館長
세 이 론	M. Haniffa	세이론大學校圖書館長
//	E.D.T. Kularatne	세이론大學校圖書館副館長
//	W.B. Dorakumbure	Vidyodaya 大學校圖書館長
파 키 스 탄	Mrs. H. A. Kahn	카라치大學校圖書館副館長
//	Md. Basiruddin	파키스탄文敎部 文書館
//	A.B.M. Huq	東파키스탄 농촌개발학술원 도서관장
西部 사모아	Mrs. Usuga Iiga	넬슨 기념 공공도서관 사서
//	A. Sakaria	넬슨 기념 공공도서관 봉사부 사서
레 소 토	Mrs. Julia Matsaba Leballo	레소토國 British Council 도서관사서
태 國	Miss Daruna Somboonkun	카세트사트大學圖書館長
//	Amnat Chanpan	첵마이大學圖書館司書
이 란	G.H. Tasbihi	타부리즈大學 圖書館學科敎授
//	A.A. Jana	데헤란大學圖書館學敎授
네 팔	S.N. Adhikaree	카이자 도서관장
휘 지	Kantilal Juina	휘지國西部地域圖書館長
나이제리아	B.A. Oni-Orisan	이바단大學圖書館長
//	J.O. Malomo	나이제리아法科大學圖書館長
우 간 다	Elizabeth R. Kyegombe	마케레레大學圖書館參考課長
韓 國	張 一 世	國立中央圖書館司書課長



(서부호주 : Sharr씨(右2) 및 빅토리아 : Horn(右3) 주립 도서관장과 같이)

二. 세미나 課程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세미나는 12週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12週間에 걸친 課程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다.

1. 序論(1週—칸베라市)
2. 行政(4週—칸베라市)
3. 濠洲에 있어서의 圖書館奉仕(2, 5週—4個都市中心)
4. 觀察과 討議(2, 5週—4個都市中心)
5. 세미나 및 評價(2週—시드니市)

以上과 같이 大別한 것을 세미나 順序에 따라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1. 序論(第1週—칸베라市)
 - a. 호주의 習慣과 禮節
 - b. 호주의 社會福祉
 - c. 호주의 歷史
 - d. 호주의 政治문제 및 經濟問題
 - e. 호주의 教育制度
 - f. 호주의 行政制度
2. 行政(第2週~第5週—칸베라市)
 - a. 會議進行法
 - b. 會議領導실습
 - c. 行政原理 및 圖書館運營에의 適用
 - d. 현대社會에 있어서의 情報傳達
 - e. 豫算문제 및 企劃
 - f. 行政過程
 - g. 行政에 있어서의 人間要素
 - h. 現代에 있어서의 컴퓨터
 - i. 檢閱制度
 - j. 面談기술과 相談—人事管理
 - k. network 분석
 - l. 統制와 執行
 - m. 判斷方法
 - n. 情報傳達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역할
 - o. 參加國家圖書館現況紹介
 - p. 호주 국립중앙도서관, 호주 국회도서관, 칸베

라 공공도서관 및 특수 도서관 시찰

3. 濠洲에 있어서의 圖書館奉仕(2, 5週—4個市에서)
 - a. 호주에 있어서의 圖書館奉仕의 歷史
 - b. 호주에 있어서의 圖書館 및 情報奉仕의 형태
 - c. 州 및 國家水準에서의 計劃
 - d. 호주에 있어서의 專門職司書를 위한 教育
 - e. 各國에서의 適用문제
 - f. 西部州 各級圖書館活動狀況視察
 - 1) 西部州에서의 都市 및 地方公共圖書館活動
 - 2) 西部州에서의 學校圖書館
 - g. 圖書館業務와 自動化(Automation)문제
 - h. 圖書館建築
 - i. 빅토리아州立圖書館 및 特殊圖書館, 公共圖書館 制度 視察
 - j. 圖書館과 教育
 - 1) 현대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教育
 - 2) 教育計劃
 - 3) 技術者의 教育
 - 4) 教育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역할
 - k. N.S.W.州 각종 도서관 시찰
5. 세미나 및 評價
 - a. 前記한 各主題에 대한 檢討와 討議
 - b. 케이스 스타디

主題—圖書館奉仕의 効率化를 위한 호주의 國家的인 network에 대한 分析
 - c. 모든 課程에 대한 評價
 - d. 장래에 대한 企劃과 建議

三. 進行方法

세미나는 濠洲에 있는 圖書館專門家, 圖書館學科 敎授가 총 망라되었고 그 밖에 行政 또는 컴퓨터 관계 전문가도 課程에 따라 많이 동원되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도서관 관계 전문가는 英國에서 濠洲도서관계를 위하여 政府招請에 의한 移民學者가 많았으나 近年에는 美國에서도 여러 學者나 專門家가 역시 移民해 오고 있어서 英國과 美國의 長點을 모두 導入하고 있다는 印象을 받았다.

도서관이나 그 밖의 施設을 직접 視察하거나 또는 巡訪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침 9시에 세미나가 시작되어 午前과 午後에 각각 2時間씩의 講義와 討論이 있고 한시간이 끝날때마다 茶를 마시며 意見を 交換할 수 있도록 시간이 配定되어 있다. 사소한 일이지만 午前時間의 강의시간은 90分이고 오후에는 75분과 60분으로 단축시켜서 參加者들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配慮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얼마나 細心한 계획을 세웠는가를 알 수 있다.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세미나를 위한 課程을 계획할 때 濠洲政府의 外務部當局者에 의하여 濠洲 전체의 圖書館專門家 및 學者들로서 세미나課稅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2個月에 걸친 치밀한 討議와 檢討를 거쳐 決定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第三者가 볼 때에도 세미나課程 수립에 있어서 많은 配慮가 있었음을 여실히 느낄 정도이다.

대체로 進行方法은 講義와 討論과 見學의 三者를 調和있게 배합한 것이었다. 즉 예를 들면 컴퓨터의 圖書館에의 適用에 관한 講義가 있는 다음 講義內容을 중심으로 한 討議가 있고 다음에는 실제의 適用例를 가시 눈으로 確認해 보는 3단계의 방법이다. 물론 강의에는 슬라이드라든가 필름 영사등이 수시로 使用되어서 한층더 강의의 効果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方法과 結合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도 쓰였다. 즉 예를 들면 어느 州의 公共圖書館 활동관계를 主題로 하였을 경우 그 州의 公共圖書館에 관한 세밀한 강의가 몇일 계속된 다음 3,4일간을 계속하여서 지방公共도서관의 활동상황을 巡訪하기도 하였다.

1969年 5월에 우리나라에서 開催하였던 國際圖書館會議에 濠洲代表로 참가하였던 Mr. Sharr는 현재 西部州 州立圖書館長으로 계시는데 西部州에 있어서의 公共도서관활동 상황을 Sharr氏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상세히 觀察하는 동시에 學術的인 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進行方式의 한 좋은 例였다.

課程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特記할 만한 사실은 우리들 一行이 巡訪한 各地區의 特色있는 各급도서관활동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西部州에 있어서는 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활동이, 빅토리아州에 있어서는 특수도서관 활동이, 칸베라에 있어서는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그 밖의 관청도서관 그리고 시드니 地區에서는 주로 대학도서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 內容이어서 매우 다채롭고 다양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進行方法에 있어서 한가지 特記할 일은 그룹(group) 활동이다. 즉 參加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主題研究나 討論에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B그룹으로 하고, 강의 主題에 대한 討議를 각기 그룹에서 그때 그때마다 議長을 선출한다음 討論을 전개하고 어떤 結論을 짓는 방법이다. 그와 동시에 3個月間에 걸친 세미나를 통하여 한가지의 케이스 스터디에 관한 主題를 설정하고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종합적인 報告書를 제출하도록 하는 2重的인 그룹활동이다.

케이스 스터디의 主題는 이미 앞에서 記述한 바와같이 濠洲 전체의 國家的인 network에 대한 分析이였

으므로 効果적인 分析을 위한 方案을 A,B 두 그룹에서 각기 비밀적으로 수립하고 세미나의 最終 단계에서 A,B 그룹별로 報告書를 提出한다음 그 報告書를 중심으로 質疑가 있게 된다.

筆者가 속했던 A그룹에서는 効果적인 分析을 위하여 國立圖書館 分科委, 大學도서관 分科委, 公共 및 학교도서관 分科委, 특수도서관 分科委 및 司書教育分科委등 5개 分科委를 구성하고 각 分科委에서 研究, 조사된 것을 定期的으로 그룹 全體會議에 報告, 討議하고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 進行시켜서 세미나 중반기에는 各分科委에서 작성 제출된 報告書를 종합하여 그룹 전체의 報告書로서 再作成하여 全體會議에 提出하는 것이다.

대체로 B그룹에서도 A그룹에서와 비슷한 方法에 따라 進行되었으며 提出된 報告書의 骨子도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으나 그 케이스 스터디에 아루로치하는 方法에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提出된 報告書를 中心으로 각 그룹에서 報告書의 提出說明이 있는 다음 他그룹에서 그 報告書에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매우 진지한 質問과 應答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應答을 할 때에는 관계되는 分科委에 속했던 참가자가 해야하므로 누구나가 各自 속했던 分野에 대하여 자신있는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方式은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또 각 참가자의 意見交換에서 오는 對人關係의 親密感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도 된다.

參加者의 名單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白色 黑色 및 黃色人種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圖書館에 관계된 것 이외에 더욱 많은 여러가지의 社會事情이나 人間關係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 큰 所得이 아닐 수 없었다. 만일 세미나 期間이 한주일이나 두주일이었다면 들 그러한 所得은 있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四. 세미나의 結果

세미나가 3個月間에 걸쳐서 열렸던 만큼 各課程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세미나의 結果도 매우 좋았다고 決論지을 수 있다.

물론 各급 도서관활동에 대한 學術的인 考察은 다음 기회에 紙面을 통하여 報告하겠거니와 이번 세미나에서 얻은 結果를 要約한다면 特別히 다음과 같은 點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하겠다.

1. 호주의 歷史와 地理
2. 國立圖書館의 기능
3. 濠洲書誌諮問委員會의 역할(Australian Advisory Council on Bibliographicl. Services)
4. 西部州 및 빅토리아州公共圖書館活動상황의 比較

5. 西部州에서의 학교도서관
6.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의 기능
7. 大學도서관의 현황과 전망
8. 州立圖書館의 機能
9. 컴퓨터의 圖書館에의 適用問題
10. 州 및 國家水準에서의 協力문제
11. 專門職教育現況과 展望

五. 東南亞 여러나라의 現況

한마디로 말해서 日本을 제외한 그밖의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도서관활동은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중에는 獨自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대체적으로 大學圖書館에서의 경우이고 公共이나 학교도서관 분야는 더욱 눈에 띄이게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

筆者가 濠洲로부터의 歸路에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홍콩, 타이페이 및 東京을 巡訪한 중에서 싱가포르, 태국 및 중국의 국립도서관장은 모두 圖書館學을 專攻한 전문적 사서라는 점이 특징이며 특히 중국국립도서관에서는 여러가지의 改革을 試圖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公用語가 4개국어 내지는 2개국어가 쓰이는 관계로 出版활동에 있어서나또는 일반적인 도서관활동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거리로 되어 활발한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地理적으로 隣接해 있는 이 두나라는 도서관 문제의 발전을 위한 協力이 매우 눈에 띄이고 특히 昨年부터는 이 두 나라가 中心이 되어 東南亞 각국의 圖書館인들이 2年마다 定期的으로 모여서 相互學術情報의 交流, 圖書館에서의 技術的인 문제해결, 도서관자료의 교환, 人事交流등을 위한 會合을 가진 것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의 活動이 기대되는바 크다.

싱가포르大學 도서관, 새로 세워진 쿠알라룸푸르의 말라야大學도서관, 홍콩에 있는 中國人大學 도서관등은 개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특히 방콕에 있는 아세아 기술대학도서관은 국제적인 募金에 의하여 設立된 학교로서 그 大學圖書館長으로 近年에 취임한 李華偉博士의 활약이 눈에 띈다.

臺灣大學圖書館學科 주임教授인 賴永祥氏는 大學院을 설치하려는 努力이 거의 結實단계에 있다고 筆者에게 말하였는데 지난 學期부터는 韓國語를 圖書館學科의 選擇科目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한층 더 우리나라와의 友誼를 돈독히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14,5명의 수강생이 있다고 한다. 韓國語강사로

는 한국인인 許璧氏가 수고 하고 있다.

끝으로 日本에서의 특기할만한 것은 日本의 國立圖書館인 國立國會도서관에 도서관업무의 機械化를 위해 컴퓨터가 導入되었다는 점이다. 筆者가 1969年 9월에 그곳을 訪問하였을 당시에는 컴퓨터를 아직 設置하지는 못했었고 단지 準備 단계에 있었으나 昨年에 導入설치가 끝나고 지난 年初부터 試驗稼動을 시작하였다. 아직도 시험단계이어서 責任部署의 명칭도 國立國會圖書館 業務機械化 準備室로 되어 있어서 本格的인 稼動에는 相當한 時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아무튼 漢字와 日本語를 混用할 수 있는 컴퓨터가 實用化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注目할 만하다.

筆者가 그 責任者인 室長 小田 泰正司書監에게서 說明을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도 漢字를 포함하여 5,300字정도 밖에 記憶시키지 못해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나 原理上으로는 앞으로의 活用이 충분히 기대된다는 것이다. 本人이 그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알파벳만을 사용하는 컴퓨터의 速度보다 約 6分の1의 速度로 현재는 活用되고 있다. 컴퓨터의 권위자인 小田氏는 더 많은 漢字를 컴퓨터에 記憶시키는 문제는 可能하다고 설명하면서 알파벳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速度가 느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여러가지의 漢字를 안쓸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러한 制約은 不可避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다.

六. 東南亞各國巡訪의 意義

筆者는 특히 東南亞 각국을 巡訪하는데 있어서 몇가지의 뚜렷한 目的이 있었다.

첫째는 그곳 여러나라들의 전반적인 도서관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이고,

둘째는 각국 국립도서관의 建物과 施設에 대한 觀察 셋째는 各國의 國立圖書館을 비롯한 중요한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交換을 위한 의견교환 및 이미 교환하고 있는 도서관과의 자료교환 확대를 위한 교섭 등 세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이번 巡訪을 통하여 본인이 얻은 成果로서는 첫째는 각국의 國立圖書館을 비롯한 중요한 도서관과의 자료교환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둘째로 상호간의 情報交流를 활발히 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세째로 各國의 도서관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넷째로는 各國 巡訪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各級圖書館活動상황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었다는 네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7면에 계속)

2. Dargent여사가 1962년에 펴낸 **간행물 국제교환** ...1817-1960 (*Exchanges inter nationaux de publications...1817-1960*)을 새로이 내기로 한다. 신티안은 Kanevsky氏가 브뤼셀의 왕립도서관과 협조하여 펴내도록 한다.
3.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표준청구서양식을 출판하도록 한다.
4. 유네스코에서 간행한 **간행물국제교환편람** (*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숙편을 편찬하도록 한다.

간행물교환위원회와 공간행물위원회는 1958년 이후의 진척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국가와도 접촉하기 위해 교환센터 대표자 회의가 필요함을 제차 결의하였다. 비엔나 국립도서관은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1972년 부다페스트 총회에 즈음하여 자기 도서관에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공간행물위원회는 1969년에 착수한 아프리카 도서관 목록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각국의 교환센터에 보낸 실태조사 질문지 작업은 끝났음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질문지를 토대로한 보고서를 발간할 자금을 IFLA에 신청하도록 결의하였다.

정기간행물 및 축차간행물위원회에서는 *Bibliographie des repertoires nationaux de periodiques en cours*의 숙편 (1966년 12월까지) 편찬 작업이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기간행물목록지침서를 간행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고 정기간행물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책자가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신문장서에 관한 서지가 편찬되어 관계도서관에 배부되어야 한다는 결의사항도 통과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또 도서관용으로 세계일간신문 서목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계 및 표준위원회는 1970년 5월에 있었던 도서관 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유네스코회의에 대하여 K. Mallabe氏의 보고를 들었다. F. L. Schick氏는 유네스코를 위해 그가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통계편람** (*Handbook on library statistics*)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앞으로의 사업에 관한 토의, 특히 도서관 이용통계, 도서관 건물 및 시청각 자료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

하다는 결의사항이 통과되었다.

회구 및 귀중도서, 문서위원회는 도서사(圖書史)에 관한 현안국제서목작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후 Antwerp와 모스크바 두곳에서 이 사업을 맡도록 결의하였다. 두번째 결의안으로 국제 도서 및 문서 보존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eservation of Books and MSS) 창설을 천거하였다. (*IFLA news* 1970년 7월... p. 7 참조)

기계화위원회는 기계제작들에게 보다 적합한 도서관 비품과 도서관에서 쓸 소프트웨어 (software)를 생산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지위원회는 다음 세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1. 가장 적합한 서지 정보 체계의 모델을 작성하도록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각 부회와 위원회의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실무위원회 (Programme Development Group)에 의해서 협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사서와 서지가 서지기술과 語典 (thesauri)에 관한 범세계적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도서관 이론 및 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1. 국제도서의 해와 때를 같이 하여 1972년에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도서와 독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제안 할 것.
2. 도서관 연구에 관한 국제다큐멘테이션센터를 설치할 것. 이는 모스크바의 레닌도서관이 책임을 맡도록 요청할 것.
3. 위원회의 실무부서를 설치할 것.
4. 다음과 같은 본 위원회의 간행물 출판을 고려할 것. (a) 위원회 활동소개를 위한 회보. (b) 도서관학의 이론적인 문제를 다룬 총서.

자문위원회와 사업계획실무위원회는 총회기간중 수차의 회합을 가졌다. 여기서는 C. Redijk박사가 기초한 중요문서가 토의 되었는데 이는 모든 회원들에게 제출될예정으로 있다. 그 문서는 197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리버풀에서 개최되는 다음 총회에 제출될 단기계획의 근거이기도 하다.

(11면에서 계속)

七. 맺는말

위에서 이미 이야기 한것처럼 學術的인 것은 本人이 수집한 資料가 도착하는 대로 정리하여서 다시 報告하겠다. 단지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호주가 단시일내에 世界一流의 美國이나 英國과 맞먹는 정도로 各級 도서관이 발전한데에는 물론 여러가지의 理由가 있겠으나 圖書館人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努力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理由中的 하나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東南亞各國을 比較하여

볼 때 우리는 조금만 더 努力한다면 훨씬 더 빨리 훌륭한 도서관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의 要素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알수 있다. 各自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創意力을 발휘한다면 그러한 時期는 더욱 가까운 장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이 機會에 發展하는 濠洲의 도서관制度를 視察할 수 있도록 초청하여 濠洲政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또 歸路에 東南亞 各國의 도서관 사정을 觀察할 수 있도록 財政的인 도움을 준 아세아財團에도 감사를 드리는바이다.